

#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

2011년 9월 23일

민 경 국 교수 (강원대학교)

## I. 문제의 제기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취급한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그 이념은 서구사회에서 전후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동안 벌려온 자유주의의 지적인 운동의 결과라고 한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의 대처 수상의 경제정책에 극적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이다(하비, 2005/2009; Turner, 2008).

이 같은 역사적 드라마가 있기까지는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각 나라에서 활동하던 신자유주의 동조자들, 대학, 그리고 싱크 탱크, 미디어들이 그 이념을 확립하고 확산하려는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Cockett, 1995; Hartwell, 1995).

또 그 같은 문헌들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것은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탈규제, 그리고 복지국가 축소 등, '자유방임'을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것이다(이상이, 2010).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환상을 없애기 위해 등장한 이념, 또는 서구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집단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형성된 이념이라고도 한다.(Jackson, 2010).

일각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제3세계 국가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할 정책들(정부 예산 삭감, 자본 시장 자유화, 외환 시장 개방, 관세 인하 등)을 담고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신자유주의라고 말한다(윤소영, 1999). 또는 신자유주의의 기원을 몽펠린 소사이어티에서 찾기도 한다.(하비 위의 책)<sup>1)</sup> 혹은 신자유주의를 하이에크, 프리드만 그리고 뷰캐년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한다(이근식 2010).

신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이 같은 이해가 온당한가? 그 이념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기원(origin)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즉, 정치적 이념은 역사적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질된다. 심지어 하이에크가 말한 대로 이념의 진의가 더럽혀지고(Hayek, 1988). 그 결과, 최 광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념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장애가 된다(최 광, 2011).

이 글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즉, 신자유주의는 1930년-40년대 자유의 수호자들은 당시 서구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집단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주의가 쇠락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 끝에 형성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

1) 주로 좌파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방임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실업과 빈곤 그리고 위기, 범죄 등, 사회악을 야기한다는 장본인이라는 뜻에서 신자유주의를 '사회적인 악의 화신'이라고 비판한다.

이 논쟁의 핵심은 자유주의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몰락하고 대신에 집단주의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음에도 외적인 요인 때문에 자유주의가 몰락한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 논쟁과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개념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1938년 파리에서 개최한 “월터 리프만 국제 콜로키움(Walter Lippmann Colloquium)”과 그리고 1947년 스위스의 몽 펠린에서 개최한 <몽 펠린 소사이어티>의 창립학술회의이다.

두 학술회의는 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데,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소수파를 제외하고)이 확인한 것은 전통적인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19세기 역사적 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집단주의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이유는 자유주의 이념의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원인으로 전통적인 자유주의 이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념전쟁에서 자유주의가 다시 이념적 고지를 탈환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새로운 버전(a new version of liberalism)” 또는 “자유주의의 갱신(le renovation du liberalisme)”이 필요하다는 믿음에서(Hartwell, 1995: 33), 신자유주의의 개념이 등장했다. 말하자면 그 학술회의에서 자유주의가 새로이 탄생했던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그 두 가지 학술행사를 중심으로 몰락했던 자유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새로이 태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자유주의가 다시 태어나게 된 정치적 이념적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제II장). 그 배경은 영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사회를 지배했던 다양한 집단주의 이념에 대한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도전이었다. 그들이 도전했던 집단주의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자유주의가 다시 태어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의 역사적 의미와 콜로키움 참석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위상을 설명할 것이다.(제III장)

제IV장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기원의 최고 절정으로서 몽 펠린 소사이어티의 창립의 역사적 의미와 이 창립 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이념적 위상을 설명할 것이다. 이 학회를 통해서 자유주의의 새로운 틀이 가시화되었고 이것이 반사회주의의 상징과 자유주의 희망의 강력한 목소리로서 신자유주의가 되었다.

제V장에서는 두 학술행사의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은 이념적 위상과 정책 어젠다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 제VI장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 신자유주의 개념의 허와 실이 무엇인가를 밝힐 것이다.

## II. 집단주의 해체모니와 자유주의의 몰락

서구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이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믿음이 20세기 초부터 유럽사회를 점점 지배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의 이념은 빈곤이나 대량실업의 주범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이를 두고 “자유방임은 이제 끝났다”고 했다.(Keynes, 1926). ‘집단주의’와 ‘계획경제’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적절한 틀이라는 것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도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평시에도 이것이 빈곤퇴치와 실업구제를 비롯하여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믿었다.<sup>2)</sup>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자유주의 질서가 파괴되었다. 이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오이켄(W. Eucken)이 말했듯이 “실험의 시대”였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유럽과 그리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자율적인 시장과 자유사회를 계획으로 대체했다. 포퍼(K. Popper)가 말한 바대로 “절망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작은 정부를 말하면 ‘퇴폐적인 사람’ 또는 ‘시대의 낙오자’로 낙인찍기가 일쑤였다. 그런 탓으로 자유주의자들의 수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자유주의의 이념도 잊혀져가고 있었다. 그래서 미제스는 1927년 저서 『자유주의』에서 이렇게 말했다(Mises, 1922/1995: 32-33).

“세상은 자유주의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영국에서조차 자유주의자는 있지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사회주의자이다. 세계는 지금 반(反)자유주의 정당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반자유주의 사상에 힘입어 사회주의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잔류한 그리고 외롭게 남은 소수의 자유주의자들이 있었다. 하이에크(F. A. Hayek), 미제스(L. Mises), 뢰프케(W. Röpke), 로빈스(L. Robbins), 쥬크스, (J. Jewkes), 스티글러(G. J. Stigler), 사이먼(H. Simons), 프리드만(M. Friedman) 등이 그들이었다. 집단주의에 대한 그들의 ‘도전과정’에서 자유주의는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국의 집단주의의 철학적 바탕과 정책적 방향,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비판적으로 그 집단주의에 도전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갈등을 계획으로, 혼란을 목적으로 교체시켜 준 것이 전쟁이라고 여겼다. 평화 시에도 특정한 목표를 정하고 국가가 노동, 자본과 연합하여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성공적인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Brinkley, 1998: 80-82)

## 1. 영국, 미국, 독일을 지배한 집단주의

1917년 10월 혁명으로 러시아는 계획경제의 길로 들어섰다.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자본주의를 없애려는 레닌의 노력에 매력을 느꼈다. 혁명이 헝가리 등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더구나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 미국도 집단주의와 계획경제를 선호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고전적 자유주의를 밀어내고 영국사회를 지배한 집단주의는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이다. 또 미국사회는 ‘진보주의’가 지배했다. 이 이념의 최고 절정은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이다. 독일에서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은 ‘민족사회주의’이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기원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 1)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자유주의의 산실이었던 영국에서 자유시장이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은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에서 시작되어 그린(T. H. Green), 홉슨(J. A. Hobson)과 홉하우스(L. T. Hobhouse) 등에 의해 형성된 이른바 “뉴 리버럴리즘”(New Liberalism)이다. 이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 개념에 각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여<sup>3)</sup> 경제적 자유주의로부터 결별을 선언한 이념이다. 이 개념의 등장 이후 영국의 역사를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다이시(A. Dicey)와 케인즈, 그리고 나중에 하이에크 등에 의해 사회를 변동시키는 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념’이라는 의미에서 “이념이 중요하다”는 말이 등장했다.

뉴 리버럴리즘의 등장은 시민들에게 물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가 광범위하게 경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Ruggiero, 1959: 147; Barry, 1999: 33).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허구이고 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념을 정치적 운동으로 전환시킨 것은 웹(S. Webb)과 쇼(G. B. Shaw)에 의해 설립된 “페이비언 소사이어티”(Fabian Society)였다. 자유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빅토리아 시대는 빈곤과 실업 그리고 착취의 시기였고 인류문명을 퇴보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 사회주의 운동의 명분이었다.<sup>4)</sup>

3) 이 주장은 그린(T. H. Green)의 1881년 강연문 “자유주의 입법과 계약의 자유”의 내용이다. (Nettleship, R. (ed), *Green's Works*, Vol. 3. London, 1988. p. 371, Barry (1999: 63)에서 재인용함.)

4) 페이비언 소사이어티는 국가권력의 확대를 정당화한 영국의 첫 번째 단체이다(Cockett, 1994: 14). 이는 삶의 질 향상에서부터 빈곤과 고용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국 산업의 경쟁력에서부터 국제무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손’에 달

흥미로운 것은 그린과 홉하우스, 홉슨 등은 독일의 국가주의 철학자인 헤겔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았으며, 당시 독일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의 강제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뉴 리버럴리즘’ 시대(1908-1915년)에 적용했다는 사실이다(Cockett, 1994: 15).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영국 정부는 사회복지, 산업합리화 또는 국가경제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일련의 입법을 단행하여 영국 사회가 페이비언 집단주의 국가로 진입했다.<sup>5)</sup>

정부권력과 정부지출의 확대를 요구하는 집단주의의 이념적 진로를 가속화시킨 것은 1929년-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다.<sup>6)</sup> 이 거대한 사건은 자유 자본주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Turner, 2008: 56).

당시 계획사상을 대표했던 우톤(B. Wootton)과 모리슨(H. Morrison) 등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들은 기술관료적 전문가의 미덕을 철저히 신봉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국가행정가들에게 국가경제의 경영을 맡긴다면 그들은 이윤동기의 불합리한 제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산업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평등과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성장도 아주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ebenda, 57).

그 후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이념적 최고절정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영국의 복지국가의 확장을 요구하는 ‘베버리지 보고서’(Beverage Report)이다. 영국사회의 번영의 길은 복지국가라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다른 하나는 페이비언 사회주의를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한 인물이 자유주의의 종언을 선언하고 수요관리 정책 등 국가개입을 옹호한 케인즈였다.<sup>7)</sup>

## 2) 미국의 진보주의

거의 19세기 내내 미국인들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했다. 그러나 20세기 초(정확히 말해서 1898년-1916년)<sup>8)</sup>에는 자유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이념이 등장했다. “진보주의(progressivism)”가 바로 그것이다. 진보주의 이념은 미국의 국부(國富)가 소수의 대기업들의 손에 집중되었고 이는 타인들에 대한 착취의 결과라고 믿

---

려있다고 믿었다(Turner, 2008: 55).

5) 전쟁기간과 전후 석탄산업의 국유화, 자유무역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관세의 도입, 주택시장의 규제, 노동시장의 규제, 조선 산업, 철도 산업 등 특정산업에 국가독점의 창출이다.

6)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경제에 대한 정부통제가 더욱 확대되었고, 정부지출도 국민총생산액 대비 1870-1890년의 9%에서 1926년 26%로, 그리고 1940년 60%로 급증했다.

7) 뉴 리버럴리즘의 창시자 가운데 한사람인 홉슨의 반시장적 입장을 케인즈가 자신의 『일반이론』에서 격찬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8) 역사학자들은 1898년-1916년을 “진보주의 시대”라고 표현한다.

었다. 진보주의는 빈곤과 실업의 문제, 경제력 집중 해소 등을 국가의 지상과제라고 여겼다.

자유경제는 정글과 같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에너지를 지정된 방향으로 결집하도록 “과학적으로” 교육받은 전문가와 관료를 통한 조종이 필요하다는 믿음과 경제적 개인주의 시대는 국가의 자원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는데 이를 적절히 통제만 하면 빈곤을 없애고 더욱 더 큰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했다(Eckirch, 2009: 184).

미국에서 진보주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는 각종 입법을 촉진했고 연방정부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sup>9)</sup> 그것은 대외무역에서 수입관세의 부과, 그리고 주(州)들 간의 교역(interstate trade)에 대한 규제강화, 소득세의 도입 등 국가의 규제도 진보주의의 주요 정치적 어젠다였다. 자유은행제도의 종말을 고한 것도 진보주의 시대였다(Holcombe, 2002: 174).

진보주의 이념은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를 설립한 엘라이(R.T. Ely), 셀리그만(E. R. Seligman) 등 젊은 경제학자들에서 나왔다(Vorländer, 1998: 160)<sup>10)</sup>. 흥미롭게도 그들은 19세기 후반 독일에 유학하여 헤겔을 비롯하여 역사학과의 사상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Plickert, 2008: 41). 존 듀이(J. Dewey)의 실용주의도 진보주의의 발전에 한 몫을 담당했다. 듀이도 역시 헤겔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관료적 조종과 그리고 국가의 사회공학적 목표를 중시했다(Eckirch, 2009: 182)<sup>11)</sup>.

진보주의의 최고절정은 세계 대공황에 뒤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New Deal)이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임통제, 가격규제, 보호무역, 금융규제 등 경제규제와 사회보험과 재분배를 위한 사회개혁을 단행하였다(Holcombe, 2002: 213, 219). 정부의 “규제”와 “계획”은 뉴딜 정책의 핵심적 개념이었다. 1937년 이후 제2기 루즈벨트 행정부는 케인즈적 재정확대로 정부의 권력을 더욱 더 강화했다.

### 3) 독일의 민족사회주의

독일에서 집단주의의 정치적 등장은 빌헬름 2세 시대였던 1880년대 비스마르크의

---

9) 1890년 셔먼법(Sherman Act),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 등 경제적 권력을 제한하는 정책은 생산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제한하여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경쟁적 지위를 파괴하는데 기여했다(Bronz, 1982).

10) 이외에도 아담스(H. C. Adams), 제임스(E. J. James) 등을 들 수 있다(Vorländer, 1998: 155, Fn. 13).

11)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 유학한 진보주의자들이 헤겔의 국가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존 듀이도 마찬가지로 헤겔에 매우 익숙한 인물이었다(Plickert, 2008: 43: Fn 38).

‘민족사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와 사회는 국가목표의 수단으로 취급되었다. 보호주의로 자유무역은 뿌리가 뽑혔다. 1897년 제국법원의 판결로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촉진이 가능해졌고 이로써 경쟁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철도, 철강 산업, 광산 산업, 수력, 가스 등의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가 뒤따랐다. 비스마르크 시기에 주목할 것은 이익단체의 조직 그리고 거대 정당과 인종주의의 등장이었다.

이 같은 반자유주의 성향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더 강화되었다. 경제적 동원조치는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되었다. 전쟁은 정부에게 산업부문을 카르텔로 만들어 가격과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노동조합의 힘의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정책, 노임정책 그리고 노동입법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가 시작되었다.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조합운동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매우 강력해졌다. 독일은 사회주의 천하가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도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 조직화된 노동의 영향은 더욱 강화되어 계속되었다. 그 결과는 주택, 의료, 사회보험을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와 친(親)노동입법이 제정되었다. 기간산업에 대한 국영화는 보편화되었다. 시장경제의 존재는 보잘 것 없고 시민들의 생활이 국가에 예속되었다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해체에 뒤이어 나치즘이 등장했다. 히틀러는 극단적으로 시장을 배격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세계에서 독일 경제의 지위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믿었다. 독일경제가 안고 있는 실업과 경제침체를 해결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경제생활의 규제와 지시를 급진적으로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화된 것도 이 시기이다.

민족주의자들에게 국가주의는 경제적 성공과 군사적 성공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족 통합의 열쇠라고 여겼다. 보호관세, 외채 감축, 그리고 수입대체산업 등 세계경제에서 독일의 종속을 초래하는 모든 요소를 해소하려고 했다(Hardach, 1976: 71-72).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이에크가 입증했듯이 이 같은 민족사회주의의 이념적 뿌리는 사회주의이고 그리고 정치적 출발점은 비스마르크라는 것이다.<sup>12)</sup>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족사회주의는 헤겔과 역사학과, 그리고 강단사회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헤겔의 영향력이 얼마나 거세었는가는 그가 독일의 집단주의는 물론 영국의

---

12) 나치즘의 이론적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한 인물은 쾰른(W. Sombart), 슈미트(C. Schmitt)이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 제12장에서 기여한 인물을 많이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미세스도 1944년 자신의 저서 『전지전능한 정부』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완전한 제목은 『Omnipotent Government: The Rise of the Total State and Total War』 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미국의 진보주의 등 해외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다.

## 2. 몇 가지 이념적 개념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자유주의를 ‘부활’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진보주의 그리고 ‘리버럴리즘’ 등 집단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개념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전부 역사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용어이다. 이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연장이나 토지(자본)에 대한 정당한 소유를 박탈당한 ‘무산자’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에 대한 오해이다. 무산자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인구 증가가 그 원인이다. 인구증가로 경작할 토지도 부족하고 연장도 부족하여 이런 자본을 갖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아니었으면 굶어 죽어 없어질 부분이었다. 하이에크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무산자는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고용 기회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추가적 인구이다. 자본의 증가로 노동생산성도 증대했다. 그래서 시장경제가 무산자를 노동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었다 (Hayek, 1963: 16).

‘진보주의’에서 진보를 ‘규범적’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면 당시 사람들의 삶의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념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19세기는 독일이나 영국처럼 생활수준의 보편적인 향상을 불러왔고 사망률도 급격히 하락하는 번영의 기간이었다. 경제사 전문가 히그스가 보여주는 것처럼(Higgs, 1987: 107) 진보주의 시대 가운데 1898년과 1902년 기간만 보아도 4년 평균 4%의 일인당 실질 국민소득(GNP)의 성장을 누렸다. 1912년 이후 4년간 침체가 있었지만 1916년 일인당 소득은 1898년과 비교해 볼 때 48%나 증가했다. 그래서 진보주의 개념도 역사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역사에서 등장한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미국에서는 진보주의가 유럽의 사회주의와 동일한 의미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남의 나라(즉, 유럽) 말이라는 이유로 싫어했다. 그래서 새로운 말을 찾고자 했다.

이에 성공한 인물이 실용주의의 선구자로 가장 잘 알려진 ‘존 듀이’(J. Dewey)이다. 그는 사회경제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조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 개혁적 이념을 부르기 위한 명칭을 찾았는데, 이를 위해 ‘리버럴’(liberal)이라는

명칭을 가져다 사용했다. 이는 “용어의 횡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리버럴’이라는 명칭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으로서 ‘시민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자유영역’을 의미했는데 진보주의자들이 경제적 조종과 계획을 위한 관료의 개입과 재분배와 집단적 사회국가적 조치에 의한 소득분배의 수정을 ‘자유주의’(liberal)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로써 진보주의는 역사를 왜곡했고 자유주의의 원래의 의미를 혼란시켰다.

### 3. 집단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

집단주의의 명칭이 무엇이든 공통점은 인간이성에 의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다. 기술 관료적인 전문가의 미덕을 철저히 신봉한다. 그들에게 국가경제의 경영을 맡긴다면 그들은 이윤동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산업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의 믿음이다.

흥미롭게도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진보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도 일치한다.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 경제적 개인주의 시대는 국가의 자원을 무자비하게 착취했는데 이를 적절히 통제만하면 빈곤을 없애고 더욱 더 큰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교육받은 전문가와 관료들이 그 통제주체이다

독일경제가 안고 있는 실업과 경제침체를 해결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경제생활의 규제와 지시를 급진적으로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도 인간이성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통속이다.

사회주의를 유포시키고 자본주의를 악마처럼 보았던 쾰른(W. Sombart)는 통치권은 영원한 계시이며 지도자는 우주의 최고의 총통인 신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다고 말했다. 개인의 선택을 정부의 재량권으로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약점으로 인하여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적 도덕적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

뢰프케는 그의 1944년 저서 『시비타스 후마나(Civitas Humana)에서 인간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합리주의의 “잘못된 길(Irrweg des Rationalismus)”라고 비판한다(Röpke, 1944/1979: 105).

### III. 신자유주의의 등장: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

앞에서 우리는 1930년대에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사회에서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집단주의를 설명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시기였다. 자유주의는 꺼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집단주의를 배격하면서 꺼져가는 자유주의의 불씨를 살리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 노력을 주도한 인물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루이 루지에(L. Rougier: 1889-1982)였다.

루지에는 당시 지배하고 있던 데카르트 전통의 합리주의를 반대하는 비주류학자였다. 그가 자유주의를 연구하던 중에 당시 미국의 저널리스트였던 월터 리프만(W. Lippmann: 1889-1974)의 유명한 저서 『좋은 사회(The Good Society)』를 발견했다. 감격한 나머지 이를 프랑스어로 번역 출간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리프만이 유럽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 김에 자유주의를 부활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학회도 창립하고자 했다(Denord, 2009: 47).

루지에는 드디어 유럽의 유명한 자유주의자들을 파리로 초청하여 1938년 8월 26일에서 8월 30일까지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학술회의의 공식적 명칭이 흥미롭다. “자유주의의 갱신을 위한 리프만 콜로키움”(pour le renouveau du libéralisme de colloque Lippmann)이다. 이 문구는 새로이 태어나는 자유주의를 말해 주기에 충분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파리학술회의라고 부를 것이다.

루지에게 초청한 인물은 프랑스를 포함하여 8개국에서 온 26명이었다. 중요한 인물은 당시 영국에 있었던 하이에크, 영국의 폴라니, 오스트리아의 미세스, 독일의 빌헬름 뢰프케(W. Röpke)와 터키로 망명해 있었던 류스토브(A. Rüstow), 프랑스의 루지에 자신과 정치철학자 레이몽 아롱(R. Aron), 보댕(L. Baudin) 등이었다. 전체주의만이 아니라 케인스주의까지도 반대하는 인물들을 초청했다. 물론 미국을 대표한 인물은 주변이었던 월터 리프만이였다.

5일 동안 계속된 학술 모임에서 월터 리프만의 발제와 루지에게 환영사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장차 자유주의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암울한 국제적 환경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이 학술회의는 친(親)자유주의 사상가들을 한 곳으로 규합했던 최초의 모임이었다. 자유주의의 유산을 점검하면서 자유주의를 새로이 태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학술회의는 자유주의 사상의 장래진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Turner, 2007: 64). 이 학술회의를 그래서 “자유주의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원”이라고 말한다.

## 1. 리프만과 루지에의 사상

윌터 리프만 학술회의에서 다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리프만의 주제 발표 내용과 루지에의 개회사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유산을 진단하고 장래 자유주의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플리케르트가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듯이(Plickert, 2008: 88) 리프만은 한 때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회원이었고, 미국의 “진보주의 시대”에는 좌파였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까지도 지지했다. 그러나 그가 이념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중시하는 연방헌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뉴딜정책을 반대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뜻에 맞는 대법관을 선출할 목적으로 법원재편법안(court-packing bill)<sup>13)</sup>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리프만은 그와 결별했다.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롭다. 그 법안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함에도 이런 법안을 제출한 것은 민주적 헌법을 살해하는 무혈 쿠데타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유였다(위의 책, 88).

리프만의 첫 마디는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집단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집단주의를 국가의 강제를 인류의 발전과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는 도그마라고 비판했다(Lippmann, 1937: 4-5).<sup>14)</sup> 국가권력을 통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희망은 국가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집단주의의 결과는 참혹할 뿐, 그것이 인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삶과 노동을 강제로 조종하는 계획의 제단에 희생당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위의 책, 22, 56).<sup>15)</sup>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오로지 권위, 특권 그리고 집중된 권력으로부터 해방될 경우에만이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흥미롭게도 리프만은 미제스의 유명한 사회주의 경제계산 불가능성론을 들어서 집단주의 경제를 비판하고 있다(위의 책, 94). 그는 현대사회의 현실법칙은 광범위한 시장에서 분업을 통해서 결실을 수확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것이 없다고 했다. 사회의 번영은 시장의 자유를 유지하고 이를 완전하게 하는 사회질서에서만 가능하

---

13)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법률안들을 입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은 심사기준을 적용하던 연방대법원에 의해 번번이 위헌판결이 났다. 이에 격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이가 70세 6개월 이상인 대법관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증원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재편법안을 제출했다. 결국 여론의 질타를 맞고 그 법안은 철회되었다.

14) 관찰자들에 의하면 리프만은 주로 자신의 책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했다.

15) 그의 비판은 미제스와 하이에크로부터 배웠다는 것이다. 이들은 1930년대 초 오스카 랑게와 디킨슨과 같은 사회주의자들과 유명한 “경제계산 논쟁”이라는 세계적인 논쟁에서 계획경제의 불가능성을 논증했던 것이다. 윌터 리프만이 배운 것은 그 불가능성이다.

다고 했다(위의 책, 206-207).

그러나 리프만의 저서에 대한 서평에서 나이트는 미제스의 불가능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Knight, 1938: 867). 그러나 이 비판이 오히려 부당하다. 하이에크가 사회주의 계산논쟁에서 주장했듯이(Hayek, 1935),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때문에 적정가격과 적정수량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리프만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

리프만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가 집단주의의 생성을 현대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이익집단의 “지대추구”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대추구란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지원이나 특혜를 얻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경우이다. 처음에는 이익집단이 국가의 호의와 특권을 얻기 위한 지대추구 경쟁을 통해 야기된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정치적 권력투쟁의 결과가 전체주의적 집단주의가 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민족사회주의, 그리고 미국의 뉴딜정책이라고 했다(위의 책, 131-132).

집단주의가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자유주의가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리프만은 19세기 역사적 자유주의로서 ‘맨체스터 자유주의’나 또는 ‘고전적 자유주의’ 그 자체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시장과 사유재산은 규제가 필요함에도 어떤 법적 규제도 거부한 점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결함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몰락의 이유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방임을 이상화했던 것이 자유주의의 치명적인 오류였다는 것이다.

리프만이 지적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결함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19세기 당시 산업혁명으로 사회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수반하여 사람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증가했음에도 자유주의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잘못이다. 둘째로 시장에 대해 집단주의가 봉기를 했어도 자유주의는 이에 맞서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어떤 적극적인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못한 잘못이다(위의 책, 208).

리프만이 지적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몰락의 원인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미제스와는 다른 차원이다. 이는 자유주의가 몰락한 이유를 자유주의 이념 그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 즉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 또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리프만은 집단주의를 대체할 정치적 어젠더를 제안했다. 그의 어젠더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야기되는 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 대기업은 자유경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 평등실현을 위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누진적인 상속세와 소득세 등이 그것이었다. 리프만의 정치적 어젠더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비춰보거나 오

늘날 자유주의와는 전적으로 다른 간섭주의이다.

그러나 리프만은 전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다. 보호주의는 국제적인 분업의 해체를 야기하고 적대적인 불록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학술회의를 주관한 루지에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보자. 자신의 1938년 저서 『신비한 경제학』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우선 그의 사상에서 흥미로운 것은 1787년 인권선언과 1793년 인권선언의 비교이다(Marion, 2004: 31). 전자는 법적 평등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는 몽테스키외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후자는 일반의지, 또는 인민주권을 강조하는 루소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전자는 피지배자에 의한 정부행동의 통제원칙이고, 후자는 지배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아 통치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이다.

루지에가 중시한 것은 이 두 가지 원칙 사이의 갈등이다. 국민주권 원칙이 정부 통제원칙을 우선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끝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루지에는 국민주권의 원칙 대신에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통제원칙을 중시한다. 통제원칙의 중시야말로 프랑스 자유주의의 두 거성(巨星)인 콩스탕트와 토크빌의 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일종의 종교적 허구와 동일한 사회주의의 평등관을 비판하고 있다. 국가배급을 요구하는 이 평등관은 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전환하는 장본인이라고 한다. 헌법적으로 제한된 권력만이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에 제한이 없는 국가권력은 국가간섭의 증가를 야기하고 결국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박해하고 경제적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루지에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헌법주의”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다른 한편, 루지에는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틀이 필요한데 이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 맥락에서 독점이나 카르텔을 허용하는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고 진정한 자유주의는 독점이나 카르텔로부터 경쟁을 보호하는 법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이런 점에서 독점과 카르텔을 방임했던 맨체스터 자유주의와 다르다고 했다. 그밖에도 상속세와 누진세를 통한 재분배와 같이 재산권 구조에 대한 국가개입을 지지하였다. 노동조합의 폭정을 비난하면서 복지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첫 단계라고 믿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Marion, 2004: 31).

당시 자유주의는 낡고 뒤쳐진 사멸된 사상이라고 여기던 시대, 그리고 집단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두 학자의 주도적인 학술회의는 “자유주의의 부

흥의 불씨”라고 여겼다(Plickert, 2008: 93). 그들의 입장은 학술회의의 토론을 위한 출발점이었다.

루지에와 리프만의 사상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이다. 첫째로 반(反)독점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을 무시하는 자유방임으로부터 이탈이다. 둘째로 자유주의가 몰락한 원인을 자유주의 이념 그 자체의 결함에서 찾고 있다. 셋째로 독점과 카르텔을 막기 위한 경쟁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이 네 가지가 5일간 지속된 학술회의에서 논의한 핵심 주제였다(Hartwell, 1995: 21; Plickert, 2008: 94).

## 2. 정책 어젠더: 학술회의의 중요한 쟁점

학술회의 논평자들에 의하면(Plickert, 2008: 93) 집단주의에 대한 루지에와 리프만의 비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가 찬성했다. 그리고 당시 유럽에는 리프만의 책만큼 대중적 인기를 끌만한 책도 없었다. 물론 사회주의를 비판한 미체스의 저서가 있기는 했지만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다.

리프만 책이 출간된 후 4년이 지나서야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등장하였고 이어서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그리고 슈크스의 『계획에 의한 시련』 등이 속속 출간하여 집단주의를 무력화하는데 기여했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리프만의 저서의 프랑스어 출판 기념과 이에 따른 국제회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루지에와 리프만이 집단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적 어젠더, 즉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제질서이다. 그 핵심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요구하는 분배정책과 독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 1) 사적 계약만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의 문제

과리 학술회의에 대한 논평자들에 의하면 의견이 분분한 여러 논점들이 있었다(Denor, 2009: 48). 그 쟁점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자유방임이다. 자유방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루지에는 전통적 자유주의를 자유방임으로 이해하고 이를 도로교통법이 없는 자동차 운행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이 태어날 자유주의는 자유방임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법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에 동조했다. 하이에크는 애초부터 자유방임이라는 용어 자체의 사용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sup>16)</sup> 이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처럼 원래 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Hayek, 1974: 62, 68).

자유방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기반이 되는 행동규칙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학문적 발전과정에서 시장경제는 행동규칙을 전제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는 도덕규칙, 종교규칙, 상관행과 상관습, 그리고 법 규칙 등이 포함된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법 규칙이다. 법 규칙에는 속하는 것은 소유권법, 계약법, 책임법 등 사법이다. 이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매우 중시한 법질서이다. 정의의 규칙과 관련된 법질서의 문제는 데이비드 흄과 애덤 스미스의 중요한 인식 대상이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루지에는 전통적 자유주의를 ‘곡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을 자세히 보면 그는 자유방임이란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반독점 정책과 복지정책을 무시하고 사적 계약에 대한 국가의 감시역할만을 중시하는 이념을 자유방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술회의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것은 자유방임의 결별을 의미한다. 그 같은 정책을 통해 자유방임과 결별한 이념을 당시 참석했던 류스토브와 보댕(L. Baudin)은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Plickert, 2008: 103).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무시했던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문제는 그 같은 법제도의 인위적 도입 여부의 문제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이에크에 의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일단 도입된 법질서는 사회의 변동에 적합하게 적응시키거나 개선할 여지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자유방임’ 개념은 법질서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이 도입하는 등 질서정책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이 태어날 자유주의는 자유방임과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반(反) 독점정책 문제

국제회의 당시 참석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은 경제력 집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였다. 논쟁의 초점은 시장경제의 경쟁은 경제력 집중, 카르텔, 자연적 독점 등을 의미하는 독점의 때문에 스스로 기능할 수 없고 그래서 국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주제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한편에는 독일 출신의 류스토브(A. Rüstow)와 뢰프케(W.

---

16) 그러나 그의 유명한 1949년 저서 『인간행동이론』에서 자유방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것은 영혼이 없는 기계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사회적 분업에서 협력을 위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생산해야 할 것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Mises, 1949: 731).



Röpke)가 있었다. 이들은 반(反) 독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경쟁 질서의 확립을 국가의 제일의 과제로 여겼다(Meijer, 2011). 왜냐 하면 시장은 자연적으로 독점하려는 성향이 있고 경제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Plickert, 2008: 96). 이 주장을 함께 한 인물은 월터 리프만과 그리고 루이 류지에였다. 당시 참석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여기에 동조했다. 이 같은 시각은 오늘날 독일과 그리고 유럽연합의 반 독점정책에서 시장 지배적 기업에 대한 남용 감시체도가 생겨났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이상적인 상황으로서 당시 경제학을 지배하고 있었던 ‘정태적인 완전경쟁’ 개념을 전제로 했다.

경제력 집중이나 카르텔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국가의 취약성 때문에 카르텔과 경제력 집중을 막지 못했고 이것이 자유주의의 몰락을 야기한 이유라고 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강한국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과는 전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그룹이 있었다. 미제스와 이를 추종하는 오스트리아학파에 속하는 참석자들이다. 기업가적 정신을 중시하는 이들은 애초부터 역동적인 시장이론을 견지한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의 정태적인 경쟁개념과 이로부터 도출된 독점 개념을 엄격히 부인하는 사람들이다.(Skousen, 2005: 199). 파리아학회와 관찰자들의 보고에 의하면(Plickert, 2008: 96) 미제스는 시장 진입이 봉쇄되어 있을 경우에 시장권력으로서 생겨난 독점이 문제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봉쇄의 원인도 흥미롭다. 그 봉쇄도 시장 자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인허가제도 또는 특권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했다.

미제스는 경제력 집중의 진정한 책임자를 국가라고 했다.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별도의 반 독점정책의 필요성을 반대했다(위의 책, 97). 미제스는 당시 지배하고 있던 완전경쟁 개념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공급자들의 경쟁을 자유주의의 이상에 해당되는 경제질서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 진입장벽이 없는 한 공급자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경쟁적이고 특히 잠재적 경쟁으로 나쁜 품질을 비싸게 파는 독점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생각이 적실성이 있는 경쟁개념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전적 자유주의 경쟁개념에 속한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몽 펠린 소사이어티 창립 학회에서도 견지했고 1949년 『인간행동론』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었다.<sup>17)</sup>

어쨌든 참석자들 가운데 경쟁질서의 확립을 국가의 과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미제스와 같이 시장의 자율적인 능력에 의해 경쟁질서가 스스로 확립

---

17) 그리고 1970년대 커즈너(I. M. Kirzner)와 라스바드(M. Rothbard) 등, 오스트리아학파 독점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는 소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미제스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제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880년대 이후 비스마르크를 비롯하여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카르텔을 촉진시켰고, 전략적 산업정책의 이유에서 석탄과 철강에서처럼 독점을 지원하기도 했다(Plickert, 2008: 96). 따라서 독점문제를 야기한 것이 시장의 자율적인 힘이 아니라 반(反) 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20세기 초 독일정부는 카르텔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었고 효율적이라는 이름으로 카르텔 형성을 권장하거나 촉구했다.

이 같은 정책의 배후에는 잘못된 사상이 있었다. 역사학과와 사회주의의 악의적인 역사왜곡과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경제관 때문이었다. 독일이 부강하기 위해서는 카르텔의 형성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적극적인 산업정책도 필요하다고 여겼다.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도 필요하다고 여겼다. 하이에크가 자신의 『노예의 길』에서 보여 주었듯이 이 같은 경제정책은 헤겔, 역사학과 그리고 강단 사회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 3) 복지정책 문제

서민층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 즉 복지정책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플리케르트의 확인에 의하면(Plickert, 2008: 99-100), 참여자들 사이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미제스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견해는 실업문제의 해결은 시장의 자율적인 힘으로 충분하고 국가의 개입과 그리고 집단적인 사회보험은 그 같은 힘을 방해할 뿐이라는 주장이었다(Plickert, 2008: 99). 국가가 개입하면 카르텔을 형성하여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거나, 또는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들을 보호하거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독점의 문제가 생겨나듯이 빈곤과 실업문제도 국가의 개입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고용과 소득의 증대 문제는 시장경제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장경제의 자기 치유적 힘이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보고 있었다.

실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안정화하려는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대량실업과 빈곤의 문제 등 1929년의 경제위기도 국가의 잘못된 통화정책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이에크도 불황의 원인을 자신의 스승 미제스처럼 화폐현상으로 보았다. 과도한 통화팽창은 생산구조를 왜곡하고 결국 파국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

려져 있듯이 그 이론을 1929년 공황에 적용했다. 따라서 그도 역시 실업과 빈곤의 책임을 잘못된 경제정책의 탓으로 보았다.<sup>18)</sup>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당시 오스트리아학파의 주관주의, 경기변동론 등을 개발했고 그리고 사회주의자들과 벌린 사회주의 계산논쟁에서 승리했다. 그들은 당시 지배하고 있던 경제학과는 전적으로 다른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던 인물들이다.

장차 자유주의의 거목이 될 미제스와 하이에크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다. 뢰프케, 류스토브 등, 독일 출신 학자들과 리프만과 루지에 등이었다. 이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들은 순수한 시장은 빈곤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주기적인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국가적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위의 책, 99-100).

흥미로운 것은 류스토브이다. 그는 사회학자 겸 경제학자였고 특히 뢰프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인문이다. 류스토브는 산업화로 인하여 물질적인 개선을 달성했지만 그러나 공동체적 유대감이 상실되었고 그래서 자유주의가 몰락했다고 주장했다.<sup>19)</sup>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는 경제위기가 아니라 ‘통합의 위기’라고 말했다(위의 책, 100)<sup>20)</sup>.

그러나 뢰프케 등의 입장에 대하여 미제스의 반박은 정곡을 찌른다. 즉, 류스토브의 주제는 자본주의 이전 시대를 미화하고 있고 낭만적인 정신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하이에크는 미제스의 이 같은 비판을 확대하여 복지정책에 대하여 “부족사회의 정신상태”(tribal mentality) 또는 원시적 사회에서나 적합한 개념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르면 그 같은 정신 상태를 극복하여 생성된 것이 시장경제라는 것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다(Hayek, 1978).

류스토브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하이에크는 지식의 자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기회균등을 위해서 강력한 상속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지했다. 이 같은 정책 제안 때문에 그를 완전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3/4 자유주의자”라고 부른다.

### 3. 두 가지 종류의 자유주의

반 독점정책과 그리고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파리 학

---

18) 보편적 실업보험은 일자리 위험이 큰, 그러나 임금수준이 높은 부분의 고용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노동시장을 왜곡한다고 말했다(Plickert, 2008: 99).

19) 그는 전통적인 농민이 뜨내기 공장 노동자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20) 이 같은 입장은 1980년대 이후 풍미했던 샌델(M. Sandel)과 같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 벨라R. N. Bellah) 등의 공동체주의가 시장경제를 비판했던 것과 흡사하다. 뢰프케와 류스토브는 ‘온건한’ 공동체주의의 선구자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술회의에서 쟁점들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는 없었다. 많은 논평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Denord, 2009: 49; Plickert, 2008: 105),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자유주의로 분리되었다. 하나는 뢰프케, 류스토브와 등 독일의 참가자들과 그리고 리프만, 루지에 등이 대변하는 자유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미세스, 하이에크, 류에프 등이 대변하는 자유주의이다.

전자의 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자율적인 힘에 대한 비판적 태도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첫째로 경제력 집중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없었다는 이유로 19세기 경제자유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별도의 중요한 경쟁정책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서는 고용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필요한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이 같은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결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Plickert, 2008: 105).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패배한 이유도 자유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물론 경기변동, 실업, 빈곤의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공백을 채우면서 이념적 고지를 점령한 것이 ‘집단주의’라고 믿는다.

그러나 미세스를 비롯한 소수의 참여자들이 대변하는 자유주의는 이와는 다른 생각이었다. 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시장경제의 자기치유능력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이다.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결별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다. 전통적 자유주의에는 고치거나 비판해야 할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었다. 방향에서는 옳지만 뒷받침할 이론과 철학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 고전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참석자들의 주장에서 중심된 것은 독점형성과 경제력 집중은 국가의 보호주의 정책이나 산업정책의 결과라는 주장과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시장에서 독점이 생성된다고 해도 잠재적 경쟁자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약탈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 등이었다.

미세스를 비롯한 소수의 참여자들은 복지정책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도 비판적으로 보았다. 경기변동은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에 의해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실업과 빈곤문제는 시장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빈곤과 실업의 장본인으로 여겼다.<sup>21)</sup>

---

21) 미세스가 국가의 복지정책과 독점정책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의 유명한 “간섭의 나선형”(intervention spiral)이 그것이다. 즉, 국가의 간섭은 항상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고, 이를 수정해야 할 또 다른 간섭을 불러들여 결국에는 경제전체를 포괄하는 첩첩규제가 등장한다는 것이다(Mises, 1926: 9-12; Plickert, 2008: 105).

미제스의 추종자들은 자유주의의 몰락도 자유주의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생적 요인에서 찾는다. 즉, 자유주의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또는 이를 곡해하려는 악의적인 세력 때문이라고 했다. 19세기 중반 이래 자본주의를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역사학과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이에크가 각별한 관심을 갖는 주제였다.<sup>22)</sup>

흥미롭게도 뢰프케 진영에서는 자유주의가 몰락한 이유를 자유주의 이념의 내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 자유주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시장의 독점화 현상 또는 시장의 빈곤문제 해결의 무능력이 그것이었다.<sup>23)</sup> 이와 같이 그들은 자유주의의 몰락을 자유주의 자체의 내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를 구출할 해법은 독점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하여 자유주의를 갱신하는 것이다.

뢰프케나 류스토브 등을 비롯하여 고전적 자유주의를 갱신하고 새로운 자유주의를 구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콜로키움 이후에 전략적인 이유에서 접두사인 “신”(neo)을 붙였다(Plickert, 2008: 101).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현대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그리고 현대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의미한다(Denord, 2009: 48).

그러나 미제스를 비롯한 고전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측에게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불필요하다. 반독점정책이나 복지정책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력 집중, 담합 등과 같은 독점문제와 빈곤과 실업은 국가의 간섭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 4. 파리 학술회의의 의미와 평가

집단주의로 사회가 신음하고 있던 시기에 국제학술회의를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파리 학술회의는 여러 가지로 성공적이었다.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플리케르트에 의하면(Plickert, 2008: 102), 파리 학술회의는 사유재산, 시장 그리고 경쟁을 경제질서의 원칙으로 정해 놓고 한편으로는 집단주의를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를 원점에다 놓고 그 발전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평가를 네 가지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22) 폴라니(M. Polanyi)는 사람들은 경제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불합리한 감정에 의해 인식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이해능력을 초월할 만큼 시장사회가 복잡하고 반면에 계획경제는 복잡성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했다(Plickert, 2008: 103).

23) 그리고 류스토브가 사회학적으로 주장했듯이 원자화된 사회로 인간들의 유대감의 상실이 위기의 원인으로 여겼다.

(1)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파시즘, 나치즘, 뉴딜 그리고 케인스주의 등 집단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공식적인 비판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 비판의 핵심은 집단주의는 자유와 존엄, 평화와 번영과 같이 인류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모든 가치들을 훼손한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인식은 참석자들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2)파리학술회의는 시장경제에 대하여 두 가지 점에서 일치된 생각을 확인했다. 즉, 첫째로 시장경제는 거대한 부를 창출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 자유로운 가격메커니즘은 수많은 시장참여자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그래서 가격과 수량을 통제하는 정책의 심각한 부작용을 강조하여 정부규제의 위험성을 확인했다.

(3)파리학술회의는 서구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집단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지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이념전쟁에 헌신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다. 하이에크가 1942년 유명한 저서 『노예의 길』도 이 학술회의에서 자극을 받은 결과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4) 파리학술회의는 일치된 견해는 없었지만 장차 자유주의 이념의 발전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 견해는 두 가지 자유주의로 분류된다.

미제스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가 그 하나다. 이는 경쟁정책이나 또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이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과 자유를 철저히 확립하기만 하면 시장의 내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독점이나 카르텔문제를 비롯하여 실업과 빈곤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파리학술회였다.

그러나 뢰프케와 류스토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다른 하나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아닌 새로운 자유주의이다. 그들이 중시한 것은 복지정책과 독과점 정책이었다. 이를 통한 국가의 일정한 간섭을 허용하는 일이었다.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파리 학술회의는 이 두 가지 자유주의의 끊임없는 경쟁관계를 예고했다.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참석자들은 미제스를 비롯하여 소수였고 그들은 자유주의에 형용사 신(neo)을 붙이는 것까지도 전적으로 반대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시카고학과와 오스트리아학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가 미제스가 고수한 고전적 자유주의를 지지한다. 뢰프케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독일의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자유주의로서 확립된다.

따라서 파리 학술회의는 자유주의의 이념적 진로를 밝혀준 20세기 최초의 학술회의라고 볼 수 있다.

## IV. 신자유주의의 확립: 몽펠린 소사이어티 창립 학술회의

자유주의자들이 1938년 파리에서 개최한 리프만 콜로키움 이후 10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1947년 4월 1일 스위스의 호반의 도시 몽펠린에서 10일 동안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집단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였다. 이 모임을 주도한 인물은 하이에크였다.

초청된 인물은 오스트리아학파를 심화시킨 그리고 당시 미국에 망명하고 있었던 하이에크와 미세스를 비롯하여 철학자 포퍼(K. Popper), 매컬럽(F. Machlup),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창시자였고 1948년 독일의 통화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이켄(W. Eucken)과 뢰프케(W. Röpke)의 독일 대표자들이다. 독일 참석자들은 다른 어떤 참여자들보다 직접 눈으로 나치즘의 몰락을 막 체험했던 인물들이다.

영국의 대표로 참가한 런던경제대학의 로빈스(L. Robbins), 쥬크스(J. Jewkes) 폴라니(M. Polanyi), 미국을 대표한 프리드만(M. Friedman), 나이트(F. H. Knight), 미국의 저널리스트 해즐릿(H. Hazlitt),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한 알레(M. Allais), 류에프(J. Rueff) 등이었다. 모두 39명이 모였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1938년 리프만 콜로키움에 참석했던 26명 가운데 13명이나 참석했다.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가 오늘날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지만 1947년 당시에는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정치에도 영향력이 전혀 없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흩어져 외롭게 집단주의와 투쟁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938년 파리의 국제학술회의와 비교하면서 이 첫 모임에서 형성된 자유주의의 이념적 위상을 밝히는 일이다. 이로써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몽펠린 소사이어티의 목적과 그 취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 1. 학회설립 목적과 배경: 이념과 이념전쟁

몽펠린 소사이어티의 목적은 하이에크의 개회사에 잘 나타나 있듯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실용적 측면이다(Hayek, 1947: 149). 실용적 목적은 각처에서 흩어져서 외로이 투쟁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정을 다지면서 적극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념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자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의견교환과 상호협력 그리고 우의를 통해서 집단주의의 이념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자유사회의 철학적 기초를 다시 한번 살아

있는 지적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적 목적은 “자유주의의 새로운 버전(a new version of liberalism)”을 쓰는 일이었다(Hartwell, 1995: 33). 즉, 자유주의 이론의 과제는 역사적 과정에서 “자유주의에 우연히 첨가되어 기본원칙을 왜곡시켰던 것들을 제거하고 지금까지 피해왔거나 무시했던 현실 문제들에 정면 대결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지적인 르네상스의 전제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구성원들은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단순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원칙을 갱신하는 일종의 혁신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이에크는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과 19세기 역사적 자유주의를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보다 월등한 자유주의 이념을 창출하는 것이 학회의 설립목적이었다.

하이에크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학회를 조직한 배경을 보면 매우 흥미롭다. 그 배경은 이념전쟁(idea wars)이라는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생각이다. 한 사회의 역사적 진로와 그 성격은 주로 이념의 생사에 의해 좌우된다. 한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떤 이념에 의해 인도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이 같은 믿음은 다이시(A.V. Dicey)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사회를 집단주의로 변동시킨 것은 적극적 자유의 개념의 등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케인즈와 하이에크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지금 당장 이해관계의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오래 전에 이미 이념의 갈등에서 결정된 것이다(Hayek, 1967: 147). 그리고 아무리 권력에 도취한 사람도 그의 판타지(이념)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수년 전 어떤 잡학가로부터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Hayek, 1947/1995: 162).

하이에크의 공격의 주요대상이었던 케인즈도 『일반이론』에서 “경제학자나 정치철학자의 이념은, 이것이 옳든 그르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고 세상은 다른 그 어떤 것의 헤서도 지배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Hayek, 1952/1996: 162-63).<sup>24)</sup>

그런데 이념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념의 수요자들이 특정한 이념을 자동적으로 수요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의 이념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상이한 다른 이념들과 수요자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 이념경쟁

24) 하이에크는 그의 몽 펠린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자유기업과 경쟁질서”에서 이 문장을 직접 케인즈의 일반이론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의 이 논문은 1952년 그의 논문집 『개인주의와 경제질서』라는 한글판(1995)에 실려 있다.



또는 이념전쟁을 이겨야 한다. 집단주의로부터 이념적 고지를 탈환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이 성공할 경우에만이 자유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강조했다.

하이에크는 몽 펠린 소사이어티의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논문 “지식인과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가 지배하는데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이념적 투쟁에서 성공하지 못했는가?” 등을 물으면서 이념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사회주의와 성공적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자유거래와 기회의 자유를 기초로 하여 자유주의 유토피아를 기획하는 일이 중요하다. 단순히 자유주의를 옹호하거나 비판으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희석된 또는 절충적인 사회주의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자유주의적 급진주의를 대중의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

둘째로 자유주의 진영이 이념적 고지를 재탈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운동처럼 조직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 자유주의도 유토피아를 기획해야 하고 또 지적 활동도 조직적이어야 한다. 하이에크는 19세기 및 20세기 초의 사회주의 운동의 예를 들고 있다. 그 운동이 성공한 이유를 사회주의자들의 효과적인 전략에서 찾고 있다. 즉, 사회주의자들만이 사회발전의 분명한 프로그램을, 다시 말하면 대중들에게 꿈을 실현해 줄 것을 약속하는 유토피아적인 미래의 비전과 특수한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가이드 하는 일반원칙을 제시한다는 것이다(Hayek, 1947/1967: 179).

하이에크에 의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배울 것은 유토피아가 되겠다는 용기인데 이는 지금 당장은 아주 멀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이를 매일 매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지식인들의 지지와 그리고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점이다(위의 책, 194).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사상가의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자유거래의 원칙과 기회의 자유에 기초한 자유주의 유토피아를 구성하는 일이다. 자유주의가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에 얽매어 수동적으로 이를 단순히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진영에서 나온 주장들과 맞서 투쟁하면서 믿음직한 자신의 대안적 입장을 공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단순히 자유주의를 옹호하거나 비판에 방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희석된 또는 절충적인 사회주의를 제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진정한 자유주의의적 급진주의를 대중의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하이에크에게 사회의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 변화이다. 집단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이념을 변동시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를 요구한다. 하이에크는 1956년

“『노예의 길』이 발간된 지 12년이 지난 후”라는 에세이에서 말했듯이 이념적 태도를 변동하는 것은 사람의 성격을 변동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변동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사회, 예를 들면, 진보주의의 미국이나 민족사회주의의 독일 그리고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영국에서 몇 년 안에 자유주의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이 변동은 1세대 또는 2세대가 걸릴 수도 있다.(Hayek, 1956/1967: 225). 다시 말하면, 사상의 침투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하이에크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상이지 이해관계가 아니고, 또 이 변화는 매우 장기적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의 과제도 장기적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다(Hayek, 1948/1995: 163).

이 맥락에서 하이에크가 중시하는 점은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이상과 권위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살고 있는 정치제도의 원인이요 동시에 결과라는 사실이다(Hayek, 1956/1967: 225. 영국의 사회주의를 반영하는 각종 제도도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친(親)사회주의 심성을 키우고 있다. 온정주의적 복지국가의 위협성은 그것이 복지 의존자를 꾸준히 생산하는 데 있다.

자유주의 정신이 손상된 것도 점진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그 정신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의 전통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것이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다. 언제라도 자유주의 정신이 손상될 운명에 처해 있다.

## 2. 정책 어젠다: 몽 펠린 자유주의의 위상

몽 펠린 소사이어티에 참가한 자유주의자들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도된 집단주의를 중단시키고 이를 전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이 직면했던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고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구체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Hartwell, 1995: 34). 즉, 정부의 급진적인 성장, 경제적 삶에 대한 국가 간섭의 증가, 경쟁질서의 후퇴, 반(反) 자유주의 교리와 정책의 촉진을 위한 선진으로서 역사의 악용, 정부간섭에 의한 산업독점과 노동독점의 증가, 금융의 불안정성과 경기변동, 대량실업과 지속적인 빈곤 등이었다.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자유의 제한은 국가로부터 유래한다는 생각에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최소로 줄였다. 즉, 국방, 법과 질서의 유지, 공공사업의 공급 등이다. 몽 펠린 참가자들도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각종 집단주의를 배격한 것도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 이론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당시에 당면했던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했다.

관찰자들의 보고서를 보면(Hartwell, 1995: 34; Plickert, 2008: 139-142), 몽 펠린 소사이어티의 분위기도 파리 학술회의에서와 같이 고전적 자유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래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그 이념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하이에크는 토론을 위한 주제 발표문 “자유기업과 경쟁질서”에서 자유경제와 경쟁질서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유기업을 강조했다. 19세기 자유주의를 수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19세기 역사적 자유주의가 범한 치명적인 오류는 경제로부터 국가의 완전한 후퇴를 주장하여 정치를 무시한 점인데,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국가의 과제에 관하여 거의 말이 없다.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Hayek, 1948/1995: 165):

“경쟁과 시장 그리고 가격을 질서의 원리로 인정하고 경쟁을 가능한 효율적이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률적 틀을 이용하는 정책을 기본원리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 활동의 부재를 자유주의 원리로 해석하는 것은 정부가 직·간접으로 독점에게 제공했던 적극적 지원만큼이나 경쟁의 쇠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일지는 모르나 최소한 거짓은 아닐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경제와 경쟁질서의 구분을 중시한 것은 당시 미국의 대표로 참석한 시카고 학과의 디렉터(A. Director)였다(Plickert, 2008: 142). 그는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도 부정하는 19세기 자유주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그 자유주의는 사적 계약을 감시하는 역할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간섭을 불러들였다고 주장했다.

디렉터의 주장은 질서자유주의를 주창하고 이 틀 내에서 국가의 경쟁질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오이켄의 주장과도 흡사하다. 전통적 자유주의는 자유의 제한을 위해서 자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는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전통적 자유주의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번째는 복지정책의 입장이다. 하이에크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2차 대전 후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새로운 어둠의 시대였다. 포퍼가 말했듯이 1940년대는 ‘절망의 시대’였다(Hartwell, 1995: 35).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이었다. 삶의 불안정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그래서 베버리지 계획과 같

이 불안정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의 요구가 높았다. 이를 외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주장했듯이 자유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빈곤의 대비책이 소망스러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대비책이 시장기능을 최소로 방해하는가의 문제였다.

따라서 플릭케르트가 주장했듯이(Plickert, 2008: 139) 1947년 몽 펠린의 첫 모임은 19세기 역사적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 같은 전환은 1947년 4월 1일에서 10일까지 지속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3. 몽 펠린 학술회의의 주요 쟁점

1947년 모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Hartwell, 1995: 34-35). 경쟁질서의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어떻게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가?, 대량실업과 통화의 불안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불평등과 빈곤에 대하여 자유주의 정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밖에도 다른 문제들이 더 있었다. 시장은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가?, 기독교는 자유를 위해 필요한가?, 역사는 어떻게 반 자유주의를 창출하였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역사가 이용되었는가?. 이 문제 제기를 보면 경제문제만 다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1947년 이후에 개최된 몽 펠린 소사이어티 학술회의에서도 항상 등장한 주제의 문제들이었다. 이 문제들을 일일이 다루는 것은 생략하고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경쟁질서 정책과 복지정책이 그것이다. 1947년 모임을 관찰하고 이를 연구한 하트웰(Hartwell, 1995)과 플릭케르트(Plickert, 2008: 139-150)의 문헌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 1) 경쟁질서 정책

하이에크는 발제문 “자유기업과 경쟁질서”에서 자유주의 정책으로서 경쟁질서 정책을 요구했다. 이는 경쟁과 시장 및 가격을 자유주의의 질서를 구성하는 원리로 채택하고 경쟁을 될 수 있는 대로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적 틀을 이용하는 정책이다(Hayek, 1948/1995: 165).

그에게 경쟁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경쟁”이 아니다. 그는 1946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 “경쟁의 의미”에서 완전경쟁은 사실상 경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이론이나 정책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대신 경쟁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어떤 재화와 용역에 의해서 가장 저렴하게 충족될 수 있는가를 발견해 내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언제나 미지의 세계로의 탐구여행, 즉 과거보다 더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절차이다.(Hayek, 1948/1995: 150). 그는 경쟁을 ‘발견의 절차’로 이해한 최초의 학자였다.

시장이 이 같은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의 과제인데, 전통적인 자유주의에 없는 국가의 과제이다.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는 사적 소유의 보장과 계약의 집행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공식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정의 정책을 투입하는 것이 경쟁을 더욱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항상 검증해 보아야 한다(위의 책, 165-167).

더구나 사적 소유와 계약의 자유라는 공식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또 있다. 이는 소유와 관련된 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계약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계약을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자유주의가 해야 할 과제이다(Hayek, 1948/1995: 169, 172). 그리고 그 같은 해법이 경쟁질서를 방해하는가 아니면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경쟁정책은 우선 이익단체의 반경쟁적인 책략을 막아내는 것이다. 경쟁질서의 주요 장애물은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담합이다. 경쟁을 회피하는 행동도 비판했다.

고전적 자유주의 대신에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이에크의 입장은 자유주의의 이론이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와 경제의 관계, 이익단체와 경쟁질서의 관계를 새로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환영한 인물이 반독점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오이켄(W. Eucken)이었다. 그도 자유경제와 경쟁질서를 구분했다. 자유가 남용되어, 자유가 파괴된다는 이유에서 자유경제를 반대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과 독점화를 막아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하고 과제라고 믿었다.

그러나 오이켄이 달성하고자 하는 경쟁상태는 하이에크가 끊임없이 반대했던, 그러나 당시 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던 완전경쟁이다. 이 같은 완전경쟁에서 도출한 법 규칙이 하이에크가 전제하는 역동적인 시장과정, 즉 소비자들의 욕구를 낮은 비용으로 충족할 수단을 찾는 시장과정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어쨌든 자유경제와 경쟁질서의 구분을 중시한 디렉터도 오이켄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들의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서 국가과제를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19세기 자유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다고 말한다. 20세기 초에는 폭력, 강제, 협박까지도 합리화할 정도로 통상적인 법적

용의 면제를 허용하는 반 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이 들어섰다(Hayek, 1948/1995: 174).

하이에크는 몽 펠린 소사이어티 참석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난 사이먼(H. Simons)을 인용하여 적절한 법을 통해서 무제한적인 노동조합권력을 제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위의 책, 175).

독점과 담합 또는 기업결합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진지하게 여긴 인물이 초기 시카고학파의 사이먼이다. 1948년 사후에 발간한 『자유사회를 위한 적극적 정책』에서 그의 카르텔을 촉진하는 뉴딜의 입법을 비판하면서 호전적인 노사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질서사상이다. 그는 경제학자는 경제적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가를 다루어야 하고, 적절한 규칙의 선택은 매우 복잡하고 오묘한 문제라고 믿었다(Simons, 1948: 57; 79)

사이먼에 의하면 어떤 자유시장도 재산권과 계약 집행 규칙, 그리고 건전한 통화질서의 확립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의 외부에 일종의 도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자유시장질서의 제도적 기초를 닦는 국가이다. 이것이 사이먼의 ‘질서사상’의 핵심이다.

그의 질서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는 시장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참여자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 같은 질서사상이야말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의 전통으로서 질서경제학의 핵심이었다.

30년대나 40년대의 시카고학파는 독점통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시장의 자율적인 힘에 대한 신뢰가 적었다. 프랭크 나이트는 1930년대 주요 기업은 자연적으로 독점적이라고 확신했다. “자유경쟁과 자유를 혼동하는 것만큼 엉터리 같은 오류는 없다”고까지 말한다. 그는 노동조합이 대기업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Skousen, 2005: 206).

그러나 시카고학파의 독점통제를 위한 정책은 1960년대 이후 나중에 급진적으로 변동하여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흥미로운 점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생략할 수밖에 없다.

## 2) 복지정책

파리학술회의에서 복지정책은 강력한 재분배의 방향이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뢰프케와 류스토브 리프만 등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몽펠린 소사이어티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매우 제한된 복지정책을 주장했다. 플리케르트가 확인하고 있듯이(Plickert, 2008: 142-144) 그 주도적 인물이 하이

에크와 프리드만이었다. 플리케르트의 보고에 의존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을 재구성하여 몽펠린 소사이어티의 이념적 분위기와 입장을 확인할 것이다.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먼저 제시한 인물이 하이에크였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는데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실업자의 생계나 빈곤에 대한 대비책을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장법칙을 최소로 침해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 그 대비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물리적 생존과 연계된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디렉터의 주장이다. 플리케르트에 의하면(위의 책, 2008: 142), 그는 평등은 20세기의 중심된 가치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보호관세, 농업지원 등 평등실현을 위한 정책은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했고 그래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여겼다. 빈곤가정출신의 자녀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빈곤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진세를 통한 재정수입으로 ‘최소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디렉터는 이 누진세는 납세자의 일할 의욕을 훼손하고 전체 소득을 줄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도 이 같은 희생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펠린 소사이어티 개최 직전에 세상을 떠난 사이먼은 강한 누진세를 통한 물질적 소득재분배를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1938년 앞에서 논의한 파리 국제학술회의에서 발제한 월터 리프만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당시의 이 같은 높은 세율과 그리고 극단적인 평등지향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사회적 부동성(不動性)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재산형성을 통한 경제적 신분 향상을 가로막고 그래서 자유사회의 중요성을 훼손한다는 것이었다(Hayek, 1948/1995: 176).

플리케르트의 보고에 의하면(Plickert, 2008: 143), 프리드만도 사이먼의 급진적 누진세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소수파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하고 동시에 일할 의욕을 상실하여 부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도 역시 시장은 노동자에게 최소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최소소득 보장 대신에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부의 소득세 제도는 노임최소를 정함으로써 일할 의욕을 약화하는 것을 피하고 국가지원과 노동의욕을 연계한 제도이다.<sup>25)</sup> 칼 포퍼는 하이에크와 디렉터의 최소소득 보장제와 프리드만의 부의 소득세제를 비교하면서 후자를 사회주의에 맞설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위의 책,

25) 이는 미국이 나중에 ‘근로장려세제’(EITC)의 이름으로 도입했다.

2008: 143).

이와 같이 빈곤층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견해가 달랐지만 그러나 다수는 누진세제에 대한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하이에크의 최소 생활수준의 보장과 프리드만의 부의 소득세제가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런 점에서 강력한 재분배 정책과 복지정책을 강조했던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의 분위기와는 전적으로 달랐다.

### 3) 뢰프케, 미제스, 그리고 하이에크

뢰프케, 미제스, 하이에크, 이 세 인물은 장차 자유주의 이념의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인물이었다. 이 세 인물 가운데 뢰프케가 가장 이질적이다. 그의 생각에 대하여 하이에크와 미제스의 반응은 어떤가?

뢰프케는 그의 유명한 1944년 저서 『시비타스 휴마나(Civitas Humana)』에서 집단주의와 그리고 이것이 전제하는 이성의 자만, 과학주의 그리고 실증주의를 맹렬히 비판했다(Röpke, 1944: 103-162). 이 같은 비판은 전적으로 환영을 받았다. 이미 앞에서 집단주의를 설명할 때 분명히 지적한 바와 같이(제II장 참조), 집단주의는 시장보다 관료나 전문가의 계획을 중시했다. 이 같은 계획의 전제는 하이에크가 말했듯이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이다.

뢰프케는 산업화로 인하여 인간들이 원자화되었고, 뿌리를 상실했고 그리고 거대기업과 공장에서 개인들이 균중화(Vermassung)가 되었다는 점을 비판했다(위의 책, 241-250). 자본주의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자유주의의 몰락을 이와 같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서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19세기 역사적 자유주의가 이 같은 현상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위기의 해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집단주의도 아닌 길을 택하고 있었다(위의 책, 69-88).

뢰프케는 시장경제와 양립하는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분하면서 시장경제와 양립하는 규제를 강조하여 시장개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의 제안은 그 두 체제의 중간 또는 경쟁과 계획의 중간 길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제3의 길이 그것이다. 파리학술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하여 매우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플리케르트가 하이에크와 뢰프케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에서 확인하고 있듯이(Plickert, 2008: 125), 하이에크는 뢰프케의 세 가지 생각을 전적으로 반대했다. 편지에서 논의한 그 반대 논리가 흥미롭다.

(1)균중화의 주범은 정치적인 중앙집권화의 탓이지 결코 자유경쟁질서의 탓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경쟁 질서야 말로 최대의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간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했다.



(2) 흥미로운 것은 뢰프케의 제3의 길에 대해 하이에크가 비판한 편지내용이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제3의 길 또는 중도의 길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등가적(等價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사회주의는 결코 자유주의와 등가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념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19세기 사람들이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매끄럽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판하여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자유주의의 이상과 개인주의의 기본원칙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3의 길 운운은 당치도 않다는 것이다.

(3) 제3의 길을 간다면 분명히 경제에 대한 간섭이 필요한데 뢰프케는 시장개입을 시장에 부합하는 개입과 그렇지 않은 개입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이에크는 그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위의 책: 125).

몽 펠린 소사이어티와 관련하여 미제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고수한 이유로 당시 매우 외로운 인물이었다(위의 책, 2008: 133). 그러나 장차 자유주의 발전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인물이었다. 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1950년 저서 『자유를 위한 기획』에서 제3의 길이란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흥미로운 것은 중도주의에 대한 미제스의 생각이다. 중도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 또는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이 분배를 두고 갈등하는 것을 상정한다. 중도주의는 국가가 중재자로 나서서 가치를 두 계층에 공평하게 나누어서 평화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가의 탐욕을 억제시켜 이윤의 일부를 약자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의 해악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해악도 없애자는 것이다(Mises, 1950/1998: 37).

그러나 이 같은 경제관은 전적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립은 이득의 분배에 대한 갈등이 아니다.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어느 체제가 더 잘 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다. 그 공급을 시장경제는 사기업과 기업가 정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사회주의는 중앙당국의 단일 계획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 두 원리는 조화될 수 없다.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다. 통제는 분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생산요소들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소비자들인가 아니면 정부인가일 뿐이다.

간섭주의는 자본주의의 악을 제거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간섭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간섭은 또 다른 간섭을 부름으로써 규제가 점차 두터워지고 재분배도 점차 커져서 결국 모든 가격과 이자 그리고 임금이 국가의 규제와 계획의 대상이 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위의 책, 38-42). 미제스는 독일과 영국의 가격통제의 치명적인 실패 사례를 들어서 이 같은

사회주의로 끝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제3의 길로서 간섭주의의 구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자유시장경제를 의미하는 자유방임, 아니면 독재, 즉 집단주의라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다.

몽펠린 학회를 관찰하고 연구한 플리케르트는 미제스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시각을 보고하고 있다(Plickert, 2008: 133-134). 자유주의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고내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1)자유방임을 철저히 고수한 미제스는 자유주의의 원칙이 느슨해져가는 것을 감지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유경제와 경쟁질서의 구분이다. 그는 경쟁질서가 곧 자유경제라는 것을 고수하면서 그 같은 구분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자유가 확실히 보장되면 담합도 스스로 해체될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이에크는 경쟁질서와 자유경제를 구분하는데, 미제스의 비판으로 하이에크도 나중에는 그 구분을 포기한다.

(2)사회주의자들, 간섭주의자들 그리고 재분배 주장자들은 간섭과 재분배를 빈곤을 해소하고 서민을 착취로부터 보호한다는 등 인도주의적인 어투를 가지고 설득하지만 그러나 그 정책의 배후에는 권력추구 동기 또는 질투심과 같은 매우 부도덕한 동기가 숨어있다. 그래서 미제스는 아주 정당하게 그 어투는 단순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일 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미제스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하여 하이에크와 함께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물론 하이에크는 질투와 재분배를 연결하지만 그러나 그는 재분배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대감 또는 유대감은 원시사회의 유물이라고 비판하여 재분배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 4. 집단주의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

몽펠린 학회의 첫 모임에서 돋보이는 것은 도덕과 경제학, 철학과 역사분야에서 자유사회의 파괴를 불러온 잘못된 이념에 대한 비판이다. 지적인 오류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발전 법칙을 믿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인 숙명론’이다. 이는 역사발전의 필연성 때문에 경제정책을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자유사회의 파괴를 불러오는 것은 또 있다. ‘역사적 상대주의’이다. 이는 구속력이 있는 진리와 인식도 부정하고 절대적인 도덕적 잣대도 부정한다. 모든 정치적 수단은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한다. 이 같은 역사적 숙명론과 상대주의는 선동적인 경제와 정치만 있을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역사가들에 대한 몽 펠린 참여자들의 비판이다. 자유주의 이념이 몰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사회주의자들의 왜곡된 역사해석이라고 믿는다. 특히 하이에크는 자신이 1951년 편집한 논문집 『자본주의와 역사가들』에서 반자유주의 흐름을 조성한 것이 그 같은 역사가들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역사는 인간들의 피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치이론이 정치사상보다 매우 인기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사회정치적 가치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고 말한다. 역사를 선전으로 이용하여 반(反)자본주의 태도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역사학파는 자본주의 등장의 결과 노동계급의 지위를 악화시켰다는 믿음, 대기업은 소비자들을 착취한다는 믿음 등 19세기 온갖 사회적 부조리를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믿음을 만들어 냈던 장본이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산출하는 부의 성장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희생한 대가라는 믿음을 자본주의에 대한 감정적인 혐오감과 연결시켰다. 하이에크는 그 같은 역사해석의 재생산과정에서 일반사람들을 오늘날 문명과 번영의 기초가 된 경제질서를 불신하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집단주의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말했다(Hayek, 1963).<sup>26)</sup>

사회주의 역사학자들은 이론을, 특히 고전경제학의 이론적 경제분석과 규제해제 또는 자유무역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이론의 적용이 없이도 어떤 사건의 인과적 연결을 추적할 수 있다는 생각, 충분한 사실들만 축적하기만 하면 저절로 그 같은 이론이 생겨난다는 믿음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사회현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론이 제공하는 분석 수단이 없이는 사회적 현상을 오해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이론이 없으면 사실해석은 정치적 이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역사이해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이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 좌파의 역사가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 제도와 산업혁명을 해석했다.

사회주의 역사가들은 시장시스템의 기능원리, 기능방식 그리고 기능조건에 관한 이론이 없다. 그래서 좌파의 정책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든다. 사회적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

26) 하이에크는 자신의 1956년 유명한 논문 “역사와 정치”에서(Hayek, 1963: 11-14) 1820년대 영국 노동자들의 삶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19세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고 말했다(Hayek, 1963: 12). 미제스도 그의 유명한 1949년 저서 『인간행동』에서 농업사회는 인구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빈곤한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산출했는데 산업화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Mises, 1949: 831). 영국의 자유주의 경제사가 애쉬튼(Ashton, 1963: 123)이나 허트(Hutt, 1963: 156)가 보여주고 있듯이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지적 운동은 결코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운동이었다.

수 있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시장시스템의 기능원리에 대하여 역사학자들보다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견고한 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집단주의를 정당화하는 노력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견고한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자유주의의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바탕을 확립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5. 몽 펠린 학회 창립의 역사적 의미

쉴페터는 1950년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강연한 강연문 “사회주의로의 전진”에서 몽 펠린 소사이어티 창립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반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옹호하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외톨이”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했다(Schumpeter, 1950: 448).

그러나 우리가 창립할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 학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당시 참석했던 39명 가운데 하이에크를 비롯하여 3명이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몽 펠린 첫 모임이 쉴페터의 과소평가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

더구나 자유주의 이론과 철학의 확산과 그리고 이념적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또 다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 것도 이 창립의 덕택이다. 따라서 집단주의에 도전하려는 경제학자들의 노력을 “의미 없는 기도”라는 쉴페터의 평가절하도 전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 들어났다.

몽 펠린 창립은 1938년의 파리 학술회의와 1930년대부터 자유주의 학자들이 개별적인 연구에서 점차 들어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확인해주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창립학회에서 자유주의의 초석을 닦았다는 점이다. 첫째, 개인의 자유는 효과적인 경쟁시장이 경제활동에 대한 조종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효과적인 경쟁질서의 유지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틀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셋째, 자유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법의 지배이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적 틀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 V. 파리 학술회의의 자유주의와 몽 펠린 자유주의

몽 펠린 학회 창립은 1938년의 파리 학술회의와 비교해 볼 때 정책적인 어젠다 또는 이념적 방향이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리 학술회의에서는 자유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전적으로 자유주의 이념 그 자체에 있다고 여겼다. 월터 리프만과 루지에 등은 사회경

제의 혁명적 변화로 새로이 생겨난 독점 문제와 빈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어젠다의 부족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결합을 찾고 있다.

그러나 뢰프케나 류스토브는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원자적으로 변동하여 유대감과 친숙함이 상실되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고 그래서 20세기의 문제는 인간들의 군중화라고 믿고 있다. 오직 미체스만이 자유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자유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으로서 자유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악의적 해석과 자유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았다(Plickert, 2008: 105).

그러나 몽 펠린 소사이어티에서 하이에크를 비롯하여 다수가 자유주의가 몰락한 이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찾고 있다. 첫째로 파리 학술회의에서처럼 자유주의 이념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실패했다고 믿는다.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대신에 재분배정책이나 복지정책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재분배정책을 강력히 주장했던 파리학술회의와 다른 점이다.

특히, 자유주의 이념이 철학적 이론적으로 불충분하고 정책적 어젠다가 부실하다는 그래서 자유주의 이념의 혁신과 새로운 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자유주의가 실패한 외적 요인으로서 하이에크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사회주의적 역사가들의 왜곡과 자유주의자들의 이념전쟁에서의 전략적 결합을 지적하고 있다. 몽 펠린 소사이어티는 이념전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각시켰고 이념시장에서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이에크의 이와 같은 인식은 미체스의 인식을 앞서고 있다.

정책 어젠다의 내용을 보면 두 학술회의에서 고전적 또는 역사적 자유주의의 치명적 오류는 자유기업과 경쟁질서를 동일시한 나머지 독점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국가의 역할로서 경쟁질서 확립의 과제를 도외시한 것이 ‘맨체스터 자유주의’와 같은 자유방임주의의 치명적 오류라는 것이다. 다른 장소에서 상세히 설명했지만 뢰프케, 오이켄 등의 프라이브르크학과와 프리드만<sup>27)</sup>, 디렉터, 사이먼 등 전기 시카고학과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지지한다. 그들은 사적 독점보다는 국가독점(전기 시카고학과)이나 국가규제(프라이브르크학과)이 가장 덜 나쁘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미체스를 비롯한 오스트리아학과와는 정반대였다.

복지정책도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19세기 역사적 자유주의와 전적으로 다른 생각

---

27) 젊은 프리드만은 1951년 논문 <신자유주의와 그 전망>에서 19세기 자유주의가 기업결합이나 카르텔이 불러올 자유의 제한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었다.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에서 하이에크와 미제스를 제외하고는 뢰프케, 리프만, 류스토브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국가의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몽 펠린 소사이어티에서는 뢰프케나 또는 디렉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 같은 재분배정책에 대하여 매우 유보적이었다.

하이에크가 주장했듯이 자유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빈곤의 대책이 소망스러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대책이 시장기능을 최소로 방해하는가의 문제였다. 하이에크는 ‘최소의 생활보호제도’를, 프리드만은 ‘부의 소득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몽 펠린 소사이어티의 이념적 위상은 파리 학술회의의 이념적 위상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몽 펠린 자유주의가 미제스의 자유주의 위상에 더 가깝다.

## VI. 맺는 말: 신자유주의 개념의 허와 실

자유주의 역사에서 1930년대와 1940년대는 매우 각별한 시기였다. 1950년대-1960년대와 비교하거나, 1970년대-1980년대, 또는 1990-2010년대와 비교할 때, 그 시기는 자유주의 가치의 수호자들에게는 대단히 비관적이고 불확실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위협은 페이비언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뉴딜의 ‘진보주의’와 같은 주로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였다. 당시 자유주의의 주적(主敵)은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에서 말하고 있듯이 “뜨거운 사회주의(hot socialism)”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의 수호자들은 대학에서나 연구소에서 혹은 개인 세미나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개발하고 집단주의에 맞서 싸우던 중에 자유주의 이념사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국제학술행사가 개최되었다. 하나는 “자유주의를 갱신하기 위한” 1938년의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이었다.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하기 위한 1947년<몽 펠린 소사이어티>의 창립 학술회였다.

자유주의의 미래에 대하여 참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개최한 이 학술회의에서 참혹한 집단주의를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자유주의가 패한 원인을 찾고 자유주의의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등장한 것이다. 이 학술회의에 참석한 자유의 수호자들은, 미제스, 하이에크를 비롯하여 몇몇 예외는 있었지만, 자유주의가 몰락한 근본 원인은 단순히 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애덤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고전적 자유주의 그리고 맨체스터리버털리즘으로 알려진 19세기 역사적

자유주의 자체에 내재한 요인 때문이라고 믿었다.

내적 원인으로서는 첫째가 적극적인 경쟁정책과 사회정책(복지정책)을 경시 또는 무시한 점인데, 이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자유주의를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둘째가 자유의 수호자들에게 ‘이념전쟁(idea wars)’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했던 것,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념의 수요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또는 19세기 역사적 자유주의와는 색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념전쟁에서 이념적 고지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도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색다른 차원이다.

이념의 실체를 보면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도 아니고 워싱턴 컨센서스와의 관련이 없다. 복지국가의 축소를 요구하는 이념도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이념이다.<sup>28)</sup>

1980년대 자유주의의 역사적 해체모니를 신자유주의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도 의문이다. 더구나 1950년대 이후에는 “자생적 질서 이론”의 재발견과 그리고 독점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등장은 그 같은 의문을 정당화한다. 오스트리아학과 후기 시카고학파에 속한 자유의 수호자들은 원래의 신자유주의와는 상이한 자유주의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반하여 적극적인 경쟁정책을 강조하는 프라이브르크학파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정책적 이론적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신자유주의를 독일적, 또는 유럽적 자유주의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좌파가 탈규제, 민영화, 복지축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신자유주의 개념은 역사적 뿌리가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신자유주의 개념은 엄밀히 따지면 고전적 자유주의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신자유주의 개념은 불필요한 개념일 뿐이다. 오로지 자유주의를 감정적으로 폄훼하기 위한 ‘욕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sup>29)</sup>

---

28) 신자유주의를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전적으로 몽펠랭 소사이어티라는 주장도 옳지 않다.

29) 신자유주의 개념을 실업과 빈곤 위기 등, 사회적인 악의 화신으로 보는 그들의 입장의 타당성 여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윤소영 (1999)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공감
- 이상이(2010) 『신자유주의를 넘어 역동적 복지 국가로』 민
- 최 광(2011) “ 개념과 이념의 오류 및 혼란과 국가 정책”, 『제도와 경제』 제8권 2호
- 하비 (2005/2009) 『신자유주의 : 간략한 역사』 .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하이에크(1948/1998)개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 자유기업원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Oxford. 1948
- (1988/1996) 『치명적 자만』 자유기업원 *The Fatal Conceit*, Oxford 1988
- Barry, N. P. (1999). *Welfare*, Buckingham
- (ed). (1984). *Hayek's Serfdom revisited* IEA
- (1996). *Classical Liberalism in the Age of Post-Communism*, London
- Block, W.(2002). “Henry Simons is Not a Supporter of Free Enterpris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Volume 16, no. 4
- Cockett, R.(1995). *Thinking the Unthinkable* London
- Denord, F.( 2009) " French Neoliberalism and its Divisions", in Morowski Ph.,  
*The Road from Mont Pelerin: the Making of the Neoliberal Thought Collective*, Havard University Press
- Ekirch, A. (2009) *A Decline of American Liberalism*, The Independant Institute
- Friedman, M. (1962)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 Habermann, G.(1988).“Wohlfahrtsstaat–einst und jetzt”, *Ordo* 39
- Hardach, K. (1976) *The Political Economy of Germany in the Twentieth Century* Berkeley
- Hartwell M. A (1995). *History of Mont Pelerin Society* Liberty Fund,
- Hallowell, *The Decline of Liberalism as an Ideology*, London 1998
- Hartwell, R. M.( 1965)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An Essay in Methodology" in *The Economic History Review*, 18
- Hayek, F. A. (1944). *The Road to Serfdom*, London
- (1935), "Socialist Calculation 1, 2" In Hayek,(ed): *Collectivist Economic*



- Planning*, London
- (1963). "History and Politics", in Hayek(ed) *Capitalism and Historians*, Chicago
- (1967). "Opening Address to a Conference at Mont Pelerin" in Hayek, F. A.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London
- (1967)."The Historians and the Future of Europe", in: Hayek, F. A.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London
- (1967)."The Intellectual and Socialism", in: Hayek, F. A.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London
- (1948/1995), "Free Enterprise and Competition Order", in Hayek, (ed)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London  
『개인주의와 경쟁질서』의 제 6장 <자유기업과 경쟁질서>
- (1967)."The Road To Serfdom after Twelve Years in Hayek", in F. A.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London
- Higgs, R.(1995) "Fifty Years of the Mont Pelerin Society", in *Independent Review*, vol. 1 issue 4
- (1987) *Crisis and Leviathan*, New York
- Holcombe, R. *From Liberty to Democracy*, Michigan 2005
- Hutt, W. H. (1963) ."The Factory System of Early Nineteenth Century".  
in Hayek(ed) *Capitalism and Historians*, Chicago
- Kaza, G (1997)."The Mont Pelerin Society's 50th Anniversary" in. *Ideas on Liberty* vol. 47 Issue 6
- Knight, F.(1938) "Lippmann's The Good Society", i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46, No. 6, Dec.,
- Marion, M. (2004). "Investigating Rougier". Publication du Groupe de Recherche en Epistemologie Comparee Directeur: Robert Nadeau  
Departement de philosophie, Universite du Quebec a Montreal
- Mirowski, Ph. (2009). "Postface: Defining Neoliberalism", in Mirowski, Ph.(ed) *The Road from Mont Pelerin : the Making of the Neoliberal Thought Coll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 Mises, L. (1949/1963) *Human Action*, 3ed. Chicago
- (1922/1981).*Gemeinwirtschaft:Untersuchungen über den*

*Sozialismus*, München

- (1998) *Planning for Freedom*, 자유기업원 역 『자유를 위한 기획』
- Plickert, Ph. (2007) *Wandlungen des Neoliberalismus*, Stuttgart
- Röpke, W. (1944/1979) *Civitas Humana*, Bern
- Rougier, L., (1938) *Les mystiques économiques. Comment l'on passe des démocraties libérales aux états totalitaires*, Paris, Editions de Medecis,
- Ruggiero, G. (1959) *The History of European Liberalism*, Boston
- Skousen, M. (2005) *Vienna and Chicago, Friends or Foes?* Washington,
- Simons, H. C. (1948) *Economic Policy for a Free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 Thorsen, D/ Lie, A. (2006) "What is Neoliberalis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Oslo Working Paper
- Tribe, K. (2009).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in Britain, 1930-1980" in ,Mirowski, Ph. (ed) *The Road from Mont Pelerin the Making of the Neoliberal Thought Coll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 Turner, R. S. (2008) *Neoliberal Ideology*, Edinburgh University Press
- Vorländer, H. (1997) *Hegemonialer Liberalismus: Politisches Denken und Politische Kultur in den USA 1776-1920*, Frankfurt am Main